

# 오타니, 다저스와 10년 9240억 계약... '축구의 신' 메시도 넘었다

에인절스 떠나 다저스에 새 등지...스포츠 역사상 최대 규모 SNS통해 "항상 최고의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일본인 메이저리거 오타니 쇼헤이(29)가 LA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약 9240억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오타니는 10일(한국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죄송하다"며 "다저스를 다음 팀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나온 '슈퍼 스타' 오타니를 잡기 위해 원 소속팀인 LA 에인절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등이 벌인 치열한 경쟁은 지갑을 활짝 연 다저스의 승리로 끝났다.

AP통신, MLB닷컴 등 현지 매체들은 오타니가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의 기록적인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오타니의 계약 규모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기록인 LA 에인절스 마이크 트라웃의 12년 4억2650만 달러(약 5629억8000만 달러)를 가볍게 제친다. 종전 북미프로스포츠 사상 최고 계약인 미국프로풋볼(NFL) 캔자스시티 치프스 패트릭 마흐스의 10년 4억5000만 달러(약 5940억원)도 뛰어 넘는다.

2023시즌 내내 '예비 FA' 오타니의 몸값은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빅리그 사상 최초로 5억 달러(6600억원)가 넘는 규모의 계약을 맺을 것인 전망도 나왔다.

실제 오타니의 인기는 예상보다 더 뜨거웠다. 오타니는 7억 달러 계약으로 강렬한 존재

감을 남겼다.

야후스포츠는 "오타니의 계약은 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라고 짚으며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FC바르셀로나와 체결했던 6억7400만 달러(8896억 8,000만원) 계약 규모를 넘어섰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전까지 빅리그에서 FA 선수 영입에 가장 많은 돈을 썼던 팀은 (2022시즌을 앞두고) 코리 시거, 마커스 세미엔, 존 그레이 등을 영입한 텍사스 레인저스다. 텍사스의 지출 금액은 5억8000만 달러(7656억원)에 달했다"며 "다저스는 한 번의 계약으로 이 기록을 깼다"고 짚었다.

7000만 달러(924억원) 수준의 연 평균 연봉도 놀라움을 안기기에 충분하다.

야후스포츠는 "오타니의 연 평균 연봉은 신시내티 레즈(6750만 달러·891억원), 캔자스시티 로열스(6720만 달러·887억원), 피츠버그 파이어츠(4920만 달러·649억4000만원), 오슬랜드 애슬레틱스(3390만 달러·447억4000만원)의 26인 로스터 전체 연봉을 넘어 선다"고 전했다.

투타겸업 하는 오타니는 일본프로야구 니혼햄 파이터스를 거쳐 2018년 LA 에인절스 유니폼을 입고 MLB에 데뷔했다.

분업화가 이뤄진 현대야구에서 보기 드문 오타니의 활약은 곧바로 팬들을 열광시켰다.

오타니는 MLB 데뷔 첫 시즌 2018년 투수로 10경기 4승2패 평균자책점 3.31, 타자로 114경



기 타율 0.285, 22홈런 61타점 10도루를 기록하며 아메리칸리그(AL) 신인상을 차지했다. 순조롭게 MLB에 정착한 오타니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운드와 타석을 오갔다. 2021년에 이어 올해도 만장일치로 AL MVP를 차지하며 최고 스타 자리를 지켰다.

'투수' 오타니의 통산 성적은 86경기 38승19패 평균자책점 3.01이다. '타자'로는 716경기 타율 0.274, 171홈런 437타점 428득점 86도루의 성적을 냈다. "에인절스와 함께한 6년은 내 마음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며 '친정팀' 에인절스 팬

과 관계자들에 인사를 남긴 오타니는 "모든 다저스 팬 여러분, 저는 항상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항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새 식구'가 된 다저스 팬들에게 각오를 전했다.

뉴스시



김현경(좌)\_2023-24 ISU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남자 싱글 2위. (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제공)

## 일본에 또 무릎 꿇은 한국 피겨...필수 된 4회전 점프

주니어 왕중왕전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이 고난도 4회전 점프를 구사하는 일본 선수들에 역전을 당하며 정상 등극 기회를 놓쳤다.

김현경(한광고)은 지난 9일(한국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남자 싱글에서 총점 223.61점으로 일본의 나카타 리오(227.77점)에게 4.16점 차로 밀려 은메달을 땀다.

전날 쇼트프로그램 1위였던 김현경은 프리스케이팅에서 4위였던 나카타 리오에 역전을 당했다.

여자 싱글에 출전한 신지아(영동중)도 지난 8일 일본 선수에 역전을 허용하며 2위에 올랐다.

쇼트프로그램에서 69.08점을 받아 1위에 올랐던 신지아는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합해 총점 200.75점을 받았다. 206.33점을 받은 시마다 마오(일본)에 밀려 은메달에 만족했다.

쇼트프로그램 1위였던 신지아 역시 2위였던 시마다 마오에게 역전을 당했다.

두 종목 모두 역전을 당하는 과정이 비슷했다.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3회전 점프만 구사했던 나카타 리오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첫

점프로 쿼드러플(4회전) 토투프를 성공시키며 기본 점수 9.50점에 수행점수 3.12점을 켜졌다.

반면 김현경은 첫 점프로 쿼드러플 토투프를 시도했지만 빙판에 넘어졌고 그 결과 4.75점 감점을 당했다.

여자 싱글 우승자 시마다 마오는 프리스케이팅에서 뒤늦게 이빨을 드러냈다.

시마다 마오는 첫 점프로 트리플 악셀을 펼치며 이어 2번째 점프로 쿼드러플 토투프까지 성공시켰다. 두 점프로만 가산점을 3.77점 켜졌다.

반면 신지아는 초반에 더블 악셀과 트리플 루프를 땀다. 신지아가 펼 두 점프 모두 시마다 마오가 구사한 기술에 비해 기본 점수가 절반에 불과하다.

결국 신지아는 표현력 등 구성 점수에서 시마다 마오에 앞섰지만 기술 점수에서 밀려 역전을 당했다. 신지아는 지난해에 이어 또 시마다 마오에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정상을 내주며 쓴맛을 봤다.

앞으로 시니어 무대에서 4회전 점프를 뛰는 선수들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4회전 점프 연마가 향후 세계 무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 152km 우완 특급 KIA 유승철 "7년 미완성 끝낸다" 당찬 각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KIA 타이거즈 우완 유승철(25)은 2017년 1차 지명을 받았다. 2024시즌이면 벌써 8년째를 맞는다. 데뷔 이후 가장 잘했던 시즌은 2018년이었다. 2년차에 39경기에 출전해 1승1세이브3홀드, ERA 4.37를 기록했다. 첫승, 첫 세이브, 첫 홀드까지 따내며 볼펜의 미래로 떠올랐다.

그러나 고교 3학년(효천고)때 투수로 전향한 후유증이 생겼다. 2019시즌 팔꿈치 부상으로 주저앉았다. 현역복무를 거쳐 2021년 5월 복귀했다. 확실한 준비를 통해 2022시즌 초반은 볼펜요원으로 활약했다.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리며 3구원승을 따냈다. 그러나 5월부터 부진에 빠졌고 21경기등판에 그쳤다.

2023시즌도 기대를 모았으나 4월15일 광주 키움전 등판이 전부였다. 152km를 쏘았지만 8일만에 2군으로 강등됐고 이후 풀업

### 고교 3학년 포수에서 투수로 전향... "내년 진짜 잘하고파"

을 받지 못했다. 광배근 부상도 있었다. 퓨처스 성적도 16경기 1승2패2세이브 ERA 10.42의 부진에 빠졌다. 이제는 프로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까지 달렸다.

11월 시작한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 어떤 마음으로 참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훈련에 매달렸다. 새로운 정재훈, 이동걸 투수코치를 만나 포크볼도 배웠고 투구의 방법도 얻었다. 사실상 투수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한 달을 보냈다. 두 코치도 유승철의 강력한 구위를 보고 매료됐다.

킨 베이스볼스타디움에서 만났던 유승철은 "실망스러운 시즌이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갑자기 마운드에서 투구 밸런스가 깨졌다. 그걸 잡으려고 계속 훈련하다 광배근 부상을 당했다. 그것 때문에 오래 걸렸다. 이 부상이 가장 아쉬웠다. 이렇게 제대로 못해 봐야 올라갈 게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웃었다.

이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무리캠프에 참가했다. 오키나와에서 여러가지를 배웠다. 여태껏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잡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카운트마다 다르게 던져야 한다고 배웠다. 그걸 생각하니 부담도 적고 잘 된다. 이런 부분에서 훈련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새롭게 포크볼을 배운 점도 수확이었다. "직구와 슬라이더 투피치였다. 이제는 좌타자에게 포크볼을 던지고 싶었다. 정재훈 코

치만에게서 던지는 법을 배웠고 많이 던졌다. 아예 못던졌는데 마무리캠프에서 마음 먹은대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타자들의 반응도 보인다. 라이브피칭에서는 헛스윙도 많이 나왔다"며 만족스러워했다.

특히 피치터널의 중요성도 느낀 점도 있었다. "투구의 도착점(스트라이크)은 신경쓰지 말고 피치터널만 생각하고 그 안에 볼을 던지라고 주문하셨다. 포크볼은 우타자 몸쪽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그러나 바깥쪽에 떨어뜨려도 터널안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변화구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유승철은 이제서야 투수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같았다. "고교 3학년 포수에서 투수로 전향했다. 이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했는데 중간 과정을 자르고 갔다. 볼이 좋다는 생각에 투수를 너무 쉽게 봤던 것 같다. 어릴 때부터 투수한 친구들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 나는 노하우 없이 미트만 보고 던졌다"며 웃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진짜 잘하고 싶다. 아프지 않고 1군에서 계속 던지고 싶다. 올해 2군에 오래있었다보니 1군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비시즌 기간중에도 안쉬고 훈련하겠다. 마무리캠프에서 배운 것을 더 다듬겠다. 스프링캠프에 간다면 바로 라이브 피칭을 할 수 있도록 몸을 단단히 만들어놓겠다"고 약속했다. 152km 투수의 8년 차 도전이 성공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이슬비기자

## 또 빛난 이강인 원발 프리킥...낭트전 결승골 이끌어내

### 오른쪽·왼쪽 중흥무진하며 팀 공격에 활력...팀 2-1 승리 이바지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파리생제르맹·PSG)이 원발 킥 능력을 과시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PSG는 1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2023-2024시즌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 15라운드 홈경기 FC 낭트전에서 2-1로 이겼다.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전반 16분 킬리앙 음바페를 향해 정확한 공간 패스를 보내 득점 기회를 창출했다. 음바페의 슛은 수비의 육탄 방어로 막혔다. 전반 24분에

는 문전으로 원발 크로스를 올렸지만 부정확했다. 브레들리 바르롤라의 선제골로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 시간 2분에는 음바페에게 정확한 오른발 크로스를 전달했지만 음바페가 헛발질을 했다.

후반 10분 모스타파 모하메드에게 동점골을 내준 뒤 이강인은 중원 싸움에 힘을 보탰다.

후반 37분 결승골을 이끌어냈다. 이강인이 상대 문전으로 올린 정확한 원발 프리킥을 휘카 에르난데스가 헤더슛으로 연결했다. 헤더



슛은 골키퍼에 막혔지만 문전에 있던 콜로 무아니가 차 넣었다. 이후에도 이강인은 자진 기색 없이 추가골을 노렸다.

## 북한 역도 리속, 여자 64kg급 용상 세계신기록

북한 여자 역도의 리속이 2023 국제역도연맹(IWF) 그랑프리 2차 대회에서 여자 64kg급 용상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리속은 9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대회 여자 64kg급에서 인상 114kg, 용상 146kg, 합계 260kg을 들어 우승했다.

용상에선 2019년 태극 파타야 세계선수권에서 145kg을 든 중국의 텡웨이를 제치고 세

계신기록을 세웠다. 또 인상, 용상, 합계에서는 모두 세계주니어 기록을 작성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 종목 금메달을 딴 림은심은 인상 113kg, 용상 141kg, 합계 254kg으로 2위를 차지했다.

남자 81kg급에서도 북한의 리청송이 인상 165kg, 용상 209kg, 합계 374kg을 들어 금메달을 땀다.